

韓國現代女性服飾制度의 變遷過程研究

부산여자대학 의류학과
남 운 속

目 次

I. 序 論	III. 女性服飾制度의 變化
II. 服飾制度 變遷過程에 關한 社會 經濟的 背景	IV. 結 論
	ABSTRACT

I. 序 論

開港以來 밀려 들어오는 西歐新文化의 영향은 우리의 전통복식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韓國女性의 服飾制度¹⁾는 한복과 양복으로 이원화되게 되었다. 전통복인 한복자체의 변화 뿐 아니라 착용하는 의복의 유형이 바뀌는 큰 혁신이 불과 1세기도 안되는 기간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이 착용하는 의복이 한복에서 양복으로 이행됨에 있어서 나타나는 시각적인 측면과 함께 내재된 속성이 변화되는 요인 및 과정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900년대 이후 1960년대까지는 양복에 대한 무비판적인 모방과 도입으로 인해 양복이 광역적으로 널리 확산되었으나 그로 인해 문화적 전통의 주체 의식에 관심이 고조되어 예복화된 한복이 등장하는 시기로서 1900년대 이후의 복식 변천의 방향이 일단 한계점에 도달한 시기였다. 더욱이 1970년대는 양복이 상당히 보급된 이후에 오는 단계인 기성복시대로 이행되는 시기로서 변화의 성격이 1960년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시기를 1900년 이후 1969년까지의 기간으로 잡았으

며 변화의 정도가 남성에 비해 다양한 女性의 服飾制度의 變遷過程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당시의 신문·잡지·사진등에서 實證的인 것을 선정하여 1차자료로 하였으며 이것을 분석분류하여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신문·잡지등은 1890년대 이후의 경향신문(주간),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등의 신문과 新女性, 朝光, 開闢, 여원, 주부생활, 여성동아등의 잡지를 이용하였다. 그밖에 당시의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모은 여러 종류의 사진집과 함께 개인이 소장한 사진을 참고 자료로 이용하였다.

II. 服飾制度 變遷過程에 關한 社會 經濟的 背景

오늘날 한국인의 일상복이 洋服化된 근거는 開港以來 유입된 新文化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西歐新文化와의 접촉은 開港以來 부단히 계속되어 왔고 더욱이 서구의 복식인 양복은 문화적 격변기였던 당시 한국인의 생활개선의 한 방편으로 제기되고 진행되었던 服飾制度改良의 표본으로서

1) 制度(system)에는 ① 제정된 법규, 나라의 법칙 ② 지속적이고도 공인된 사회생활의 구조(행동양식) 또는 집단의 成員을 규제하는 구조등의 2가지 의미가 있는데(申琦澈外, 「새우리말 큰사전」, 三省出版社, 1980, p. 2977.) 本論文에서는 ②번의 '지속적이고도 공인된 행동양식'의 의미로 制度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논문에서 사용된 "服飾制度"라는 용어는 新文化의 영향으로 韓國女性의 服飾이 변천되는데 있어서 제시된 새로운 양식이 '官制'에서 탈피하여 '民'의 주도에 의해 사회적으로 공인되어 수용됨으로써 韓國女性의 服飾으로 土着化되어 가는 행동양식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의 역할을 하였다.

한편 우리의 전통문화를 말살하고자한 日帝의 文化政策은 우리의 전통이 비공리적 비과학적인 것, 다시말하여 후진적이고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낙후된 것처럼 교육하여 자발적으로 우리의 것을 버리도록 유도하였다. 민족으로서의 정신적 바탕을 상실하게 하므로서 새로운 상황에 당면하였을 때에 긍정적인 모델을 외부 특히 서구적인 것에서 구하도록 되었다. 더욱이 해방이후 미군진주와 귀국후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하게된 미국유학생의 증가 및 발전된 mass media를 통해 미국문화는 한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 간접접촉이었던 日帝植民地時代를 가하면 한국인의 서구문화와의 접촉은 개항이후 현재까지 부단히 계속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격변기였던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한국인의 생활개선의 표본은 서구적인 것이었다.

한편, 기계화된 근대적인 생산체제에 의해 常用衣料의 공급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되었다. 더욱이 여성이 근대식 교육의 수혜자가 되고 교육인구가 증가된 결과 여성의 의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습관적으로 답습되던 생활의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중 강하게 대두된 것이 服飾制度의 改良에 관한 것으로 그 표본은 양복이었다.

이와같이 衣料의 다양화와 여성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전개된 복식제도개량의 단계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Ⅲ. 女性服飾制度의 變化

개항당시 착용되던 여성한복이 지니는 특징중 신체노출을 최소화시키는 은폐성, 일년내 똑같은 옷을 착용하는 미분화성, 비활동성 및 관리의 번거로움등 여성들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있던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항이후의 강렬한 사회변동에 영향받

아 表面化되어 改善해야 될 문제로서 제기되었다. 社會的變革²⁾에 의한 복식제도의 변화는 새로운 의복인 양복이 도입되었어도 곧바로 수용되어 극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³⁾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점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한국여성의 服飾制度가 이와같은 개선 및 개량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천되는 과정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1. 服飾制度改良運動

1) 第一期(1900-1919)

양복을 착용한 여성이 거리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이 시기는 服飾制度改良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 長衣의 폐지

표 1은 服飾制度改良에 관해 당시의 신문에 개재된 논설 및 기사를 분류한 것이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복식제도개량은 1905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된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보다 앞서 제국신문 1898년 10월 12일자에는

“승동 부인협회 일홈은 찬양회라 호는터...그 부인들이 어제 상소를 올니는터... 대더 사름은 일반인터 남즈에 버러주는 것만 먹고 규중에 들어안져 갖친 죄인 모양으로 권리도 업고...어터틀 다니드릭도 교군을 타던지 장옷을 쓰지 아니호면 급훈 일이 잇서도 막음 터로 출입을 못호니 장옷 쓰지말고 교군 타지말고 우산이나 들고 다니게 호여 달나고호는 목덕이라더라.”

고 하여 장옷의 대용품으로 우산의 사용을 건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상소를 한 시기로 미루어보건대, 이것이 당시 복식제도개량에 있어 최초의 건의로 생각된다. 이후 長衣의 폐지 논의는 꾸준히 계속되어 1905년 이후에는 더욱 더 활발히 일어났다.⁴⁾

長衣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당시 신문등의 언론의 기여도

2) 小川安郎, 「服飾變遷の原則」, 文化出版局, 昭和56, p. 103.

3) George B. Sproles, "Analyzing Fashion Life Cycles Principles and perspectives", Journal of Marketing Vol.45, Fall 1981, p. 117.

4) ① 帝國新聞, 1905. 5. 20, 「警使禁令」: “경무청에서 너인들이 식장옷쓰고 다니는것도 엄금하거니와”

② 帝國新聞, 1906. 5. 31, 論說 [의관의 제도를 일명홀일]: “...소위 학교에 단인다홀 학도 명식 호고 교군을 타고 단이라 홀터인가 소위 모두갖흔 장옷을 쓰고 단이라 홀터인가. 치마를 쓰고 단이라 홀터인가, 학도명식이 무엇을 쓰고 단이는 거슨 리치에도 온당치 았을 뿐더러 줄곳 너외할 터이면 학문비와 무엇 호며 또 너즈가 무엇을 쓰거으면 부정홀자의 마음을 더동호는거시라...”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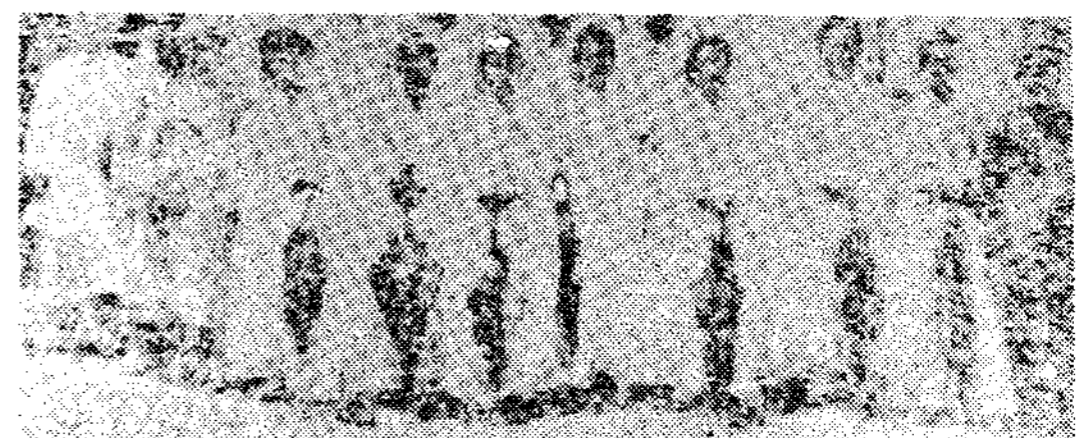
服飾制度改良의 항목

종류 년도	韓服類				洋服類				計	비고
	白色禁止 (色服권장)	長衣등쓰 개류폐지	形態 變型	부인 표준복	Khaki 色장려	양복	몸빼	용도별 의복구비		
1898	.	1	1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2	1	2	5	
1906	6	4	2	12	
1907	1	1	1	3	
1908	1	3	.	.	4	
1909	1	1	
1910	1	1	1	3	기생 : 반양복금지
1911	
1912	
1913	1	1	1	3	
1914	
1915	2	2	
1916	
1917	
1918	.	.	2	2	
1919	
計	15	9	9	.	.	3	.	.	36	

* 독립신문 1896-1899년 황성신문 1900-1910년. 매일신문 1910-1919년에 게재된 복식제도 개량에 관한 기사의 빈도를 표로 작성한 것임.

가 컸으며 이당시 개화한 일부의 고관부인⁵⁾이나 사회에 참여하는 여성⁶⁾ 및 여학생들⁷⁾은 이미 長衣를 벗고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는 시기였다.

습관적으로 사용되던 長衣의 폐지는 무언가 쓰다가 안쓰게됨에 따라 생기는 허전함과, 풍습을 용기 있게 깨는 자로서의 씩스러움 그리고, 얼굴을 노출 시키는데 대한 저항감을 무마하기 위한 대용품으로서 우산이 사용되었다.



〈사진 1〉 필수품이된 검정우산(1913)

매일신보, 1913. 7. 6

③ 帝國新聞, 1906. 11. 11(二) [女子教育會會況]

“...女子가 장옷을 쓰는 것보다 벗고 당기는 것이 可인데...”

④ 만세보, 1906. 11. 23(二) 論說 [衣制改良]

“...女子가 男子와 平等한 權利를 回復해야 文明國婦人과 如히 社會上 交際를 通行할지언 衣制를 改良하고 長衣인지 蒙頭인지 廢棄하고 露面하는 것이 古今禮俗을 參互通行함이라...”

5) 일본특파대사 李址鎔의 부인 李洪卿은 1906년 長衣를 벗고 양복을 착용하였다.

6) 미국유학에서 귀국한 박에스터(1900), 하란사(1906)

7) 淑明, 京畿, 貞信 여학교등은 1910년 이전에 長衣대신 우산을 사용하였다.

이 검정우산은 부녀자에게도 크게 유행되어 여성에게 있어서 하나의 필수품이 되었다(사진 1).

이상에서와 같이 일찍이 1890년대말 찬양회원이 상소로서 청원했던 長衣의 不用 및 폐지 논의는 15년 후인 1905년 이후에야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1910년대 중반 이후에는 長衣 폐지에 관한 기사가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1910년대 중반 이전에 長衣의 폐지는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생각된다.

(2) 形態의 改良

당시 대단히 짧은 저고리의 길이⁸⁾는 乳部와 허리를 노출시켜 매무새가 단정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가마를 타거나 長衣를 착용하여야 했으므로, 저고리의 길이를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 복식제도 개량의 특징 중 하나는 長衣의 폐지와 치마 저고리의 형태의 변화가 동시에 맞물려 행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長衣의 폐지가 활발히 논의되던 1905년 이후 개화된 인사들에 의해 한복의 형태 개량이 의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여러 가지 개량안 중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된 안이 전파 확산되어 서서히 한국여성의복에 변화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제시된 개량안은 大別하면 복식제도 개량의 표본이 되는 양복을 그대로 착용하는 안과 한복의 원형을 변형시키지 않고 길이만을 조정하여 착용하는 것과 한복의 원형을 적당히 변화시키고 양복의 요소를 집어넣어 개량하는 것 등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중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확산된 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① 韓服을 部分的으로 變形시킨 方案

당시 나타난 改良案 중에서 종래 한복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변형시킨 형태로 제시된 것은 통치마와 저고리였다. 통치마를 최초로 제작하여 입은 여성이 누구인지 입증하기는 곤란하지만 치마의 개량에 관한 논의는 1900년대 후반에 제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1907년 6월 19일자 제국신문 논설에는,

“...치마는 도랑치마⁹⁾로 하되 외로 넓고 바로 입는 폐단이 업시 통치마로 민드러서 거름거름 짚에 치마자락이 버러지지 안케 하고...”

라고 하여 치마를 도랑치마와 같이 짧게 하면서 뒤트임이 없이 통치마로 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여자교육회에서는 자유로운 몸가짐과 경제적인 점¹⁰⁾에 개량의 목적을 두고 일제히 개량시킬 목적으로 服飾制度改良案을 정부에 제출, 認許를 요청하였으나¹¹⁾ 여자의복의 개량은 급선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되었다.¹²⁾ 당시 제출되었던 개량안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확인은 곤란하나 본회에서 후원하던 養閨義塾에서 1906년 여학생복의 上衣의 길이를 남자의 적삼같이 길게 연장하여 上下 黑色으로 통일시켰으며¹³⁾, 회원들에게는 洋靴을 신도록한 것¹⁴⁾으로 보건대 저고리 길이의 연장 과 치마 길이의 短小化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량안은 통치마 저고리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여성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전도부인이나 여학생 및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개량복인 통치마 저고리는 선호되어 확산되었으며 이후 한국여성의 일상복이 양복으로 대치

8) ① 帝國新聞, 1906. 5. 31 논설

② _____, 1905. 6. 17 논설

③ _____, 1906. 6. 19 논설

④ 萬歲報, 1906. 11. 22 논설

9) 도랑치마 : ① 종아리가 드러날 만큼 짧은 치마, 金英淑 編, 「韓國服飾史辭典」, 民文庫, 1988. P. 158.

② 가정에서 반비다치(料理師 여자)와 등지치(食母)가 일할 때 입는 짧은 치마, 金和鎭, “내가 겪어온衣食住 60년”, 여성동아, 1967. 11, P. 149.

10) 만세보, 1907. 3. 5 [女會衣制改良建議]

11) ① 만세보, 1906. 12. 2 [女會提議]

② _____, 1906. 12. 20 논설 [女子衣制改良論]

12) ① 大韓每日申報, 1907. 3. 9 [改服再請]

② 제국신문, 1907. 3. 14 [樞院議案]

13) ① 제국신문, 1906. 6. 12 논설

② 만세보, 1906. 7. 4 [養閨義塾衣制]

14) 만세보, 1907. 4. 25(二) [女會討論]

되기 이전까지의 기능적인 활동복으로서 착용되게 되었다.

여성의식의 개화와 함께 꾸준히 논의되어온 여성복의 개량은 이 시기에 외양적인 형태면에서는 일단 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3) 服色の改良

한국인의 전반적인 服色인 白色과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淡色衣服¹⁵⁾대신 深色衣服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¹⁶⁾이 服色改良의 골자이다.

白色이나 淡色衣服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잦은 세탁은 衣料의 손상을 초래했고 세탁은 가사를 담당한 여성의 책임이었다. 반복되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축소시킴으로서 절약되는 경비와 시간을 여성의 자기개발과 발전을 위해 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服色改良은 시작되었다. 白衣및 淡色衣대신 深色衣를 착용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服色の 개량은 특히 白衣禁止로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白衣 폐지운동은 日帝植民地時代 전기간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이 흰 옷을 대중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착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있는 사실은 표1에 나타난바와 같이 白衣를 禁하는 운동의 시작이 통감부 정치가 시작된 1905년과 일치되는 것이다. 이것은 白衣禁止運動이 표면적으로는 한국인에 의해 시작되었어도 실상은 일본인에 의해 제기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近來服着之純用淡色이 本非舊例이오 侈靡之風이 因此而漸長인則...心用靑黑紺紫等 深色 意로...”¹⁷⁾

“國內人民의 衣制를 內閣會議에 提出하야 刺令으로 頒布하달는디 服色은 黑色으로 하고.....”¹⁸⁾

“...黑色 灰色 紫色等 深色으로 染하고.....”¹⁹⁾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黑色·灰色·紫色·靑色

紺色 등의 색이 白衣및 淡色衣의 대체색으로 제시되었다. 개량된 服飾制度인 통치마의 색이 검정색이라든지 皇后가 女侍讀에 彩色된 옷을 착용하고 입걸하도록한 것²⁰⁾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타난 것이다.

日帝의 통치기간중 一大施政綱目으로서 소학교 교과서에 게재되기도 했던²¹⁾ 色服着用運動은 당시 韓國女性들의 지위향상운동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2) 第二期(1920-1936)

표 2는 매일신보 1920-1936년사이에 게재된 服飾制度改良에 관한 기사의 빈도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의 복식제도개량은 色服獎勵에 집중되어 있으며 1921년이후에 형태에 관한 개량논의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않다. 이것은 제1기에서 제시되어 자리를 잡아가던 통치마 스타일이 1920년대 초반에는 형태면에서 개량이 완성되어 사회적 용인을 받고 광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 나름대로의 완성된 모형으로 통치마스타일이 선정되자 이번에는 服色の 개량에 服飾制度改良運動을 집중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服色の改良을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1) 服色の改良

192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色服獎勵運動은 개선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服色改良의 시대정신을 보면 여성해방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白衣는 순결한 느낌을 주는 반면 쉽게 오염되기 때문에 순결해 보일 정도로 흰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잦은 세탁이 필요했다. 이것은 위생상 좋은 점도 있으나 의복을 만드는 소임이 있는 여성들의 모든 노력이 흰 옷을 유지하는데 쓰이고 있었으며

15) ① 황성신문, 1906. 12. 26(二) [女會議決]

② 만세보, 1906. 10. 27(三) [婦人進歩]

16) 만세보, 1907. 4. 25(二) [女會討論]

17) 황성신문, 1905. 10. 21(二) [改正服色]

18) 황성신문, 1908. 2. 14(二) [衣制將領]

19) 만세보, 1906. 11. 22 논설[衣制改良-女子衣制]

20) ① 황성신문, 1909. 9. 30(二)[徵指特降]

② 大韓民報, 1909. 9. 30[侍讀彩衣]

21) 조선일보, 1938. 8. 21 社說[色衣着用問題]

< 표2 >

服飾制度改良의 항목

종류 년도	韓 服 類				洋 服 類				計	비 고
	白色禁止 (色服권장)	長衣등쓰 개류폐지	形 態 變 形	부 인 표준복	Khaki 色장려	양 복	몸 빼	용도별 의복구비		
1920	2	.	5	7	
1921	7	.	5	12	
1922	4	4	
1923	3	3	
1924	
1925	3	3	
1926	2	2	
1927	3	3	
1928	
1929	8	8	
1930	7	7	
1931	19	.	1	20	고름·단추는 형태변형에 포함
1932	13	13	
1933	17	17	
1934	11	11	
1935	4	4	
1936	3	3	
계	106	.	11	117	

*매일신보 1920-1936년간 게재된 복식제도 개량에 관한 기사의 빈도를 표로 작성한 것임.

로 色服을 착용하므로써 생기는 여가 시간에 여성 자신을 발전시키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여성해방론적인 측면에서 服色改良은 진행되었다.

한편 당시 통치권을 갖고있던 日帝총독부는 일선의 단위행정기관을 동원하여 “白衣廢止 - 色服獎勵”로 이어지는 운동을 ‘官’지도하에 끈질기게 시행하였다.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한국의 여러 풍습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한 日帝는 한국인의 의복습관중 가장 한국적이고 한국인의 정신이 담겨있는 白衣를 폐지하고자 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의도는 동기야 어떻든 한국여성들도 服色이 흰색이기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 있었으므로 당시 한국인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던 복식제도개량운동과 부합될 수 있는 것으로서 白衣廢止論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다.

급격한 어떤 결과를 보려는 ‘官’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진행된 이 운동은 韓國人의 服色을 모두 色服으로 만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 시기는 일반 여성들로 하여금 의복의 색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단순하고 무채색만이 服色으로 착용되던 습관에서 탈피하여 다채롭고 다양한 服色을 하게되는 그 전단계로서의 경험축적기간이 되었다.

진한색 또는 검정색의 옷을 착용하도록²²⁾ 권하는 色服獎勵運動은 1922년 당시 함경북도 參與官이었던 金瑞圭²³⁾가 총독부 주최의 知事會議등에서 계속

22) ① 매일신보, 1921. 1. 8(三) [衣服改良을 實行하라]

② _____, 1921. 5. 7(三) [染色衣의 着用을 勸함]

23) 매일신보, 1933. 7. 25(二) [鷄林八道]

건의하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운동의 전개내용은 慶北安東郡의 5개조로 된 실시사항을 예로들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인의 습관인 사철 흰 옷을 입는데 대하여 심활기 선의 하나로 흰옷 비격의 선던운동을 하게되었는데 조선인 균형원은 여름을 비롯코서는 모두 심혹식이나 회식의 의복을 입을일, 들지는 면직원은 인민지도를 하는 자임으로 먼저 검은 옷을 입어 면민에게 모범이 되게 할일, 셋지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일제히 검은 옷을 입도록 광고할 일, 넷지는 보통학교 성도에 대하여서는 교장으로 부터 실행하도록 주의식할 일, 다섯지는 면에 출장가는 경우나 그 기회가 잇는 경우는 이의 선던에 로력할 일...”²⁴⁾

이후 각 군단위로 주도하는 色服獎勵運動의 골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검정과 회색이외에 靑·天·水色 등을 장려하기도 하였다.²⁵⁾

이에따라 상인들은 재빠르게 黑色, 灰色, 白色의 옷감을 판매하여 수요에 충족시킴으로써 이 시기의 服色으로 검정색을 많이 착용하게하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여학생의 服色은 기생의 복장과 구별하기 위해 검정색으로 제정되어 이시기를 대표하는 색이 되었다.

이와같이 1920년대는 개방된 복식이 자리를 잡아 가고 服色에 있어서도 검정등의 짙은 색이 점차 확산되는 단계였지만 전파속도및 범위는 빠르지도 또한 넓지도 않았던듯 1920년대말경이 되어도 服色改良에 대한 ‘官’의 장려운동은 여전히 계속되었으

며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染色衣宣傳歌²⁶⁾를 제정 부르게하고 色衣宣傳標語²⁷⁾의 모집과 함께 포스터나 배라를 분배하기도 하였다.²⁸⁾ 또한 白衣着用者 옷에 ‘色’字나 ‘白衣의 中毒病者 등²⁹⁾의 글씨를 찍고 관공서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강제성을 띠고 진행되었다.

이와같이 집요하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色服의 장려운동은 염료및 염색법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염색된 의복의 착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第三期(1937-1945)

표3은 매일신보 1937-1945년간에 게재된 服飾制度改良에 관한 기사의 빈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에 나타난 바와같이 당시의 服飾制度改良運動은 服色의 改良과 함께 의복착용의 획일화를 시도하여 마치 전 여성이 제복을 착용한 것같이 의복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1) 衣服의 規格統一

戰時體制下에서 國防的인 필요로 衣料의 소비량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취해진 조치중의 하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교원및 학생과 일반여성에게까지 규정된 형식의 의복을 착용하도록하는 이른바 의복의 규격을 통일시키는 것이었다.³⁰⁾

1940년 軍服을 모델로 하여 표준복을 제정한³¹⁾ 日帝는 한국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자하였는데 대부분 양복을 기조로한³²⁾ 표준복제정의 기본정신은 다음과 같다.

多種多樣한 복장에 비해 규격이 통일된 일종의 제복과 같은 상태가 지도하기에 효과적이며 또한

24) 매일신보, 1922. 12. 17(三) [黑色을 着用하라]

25) 매일신보, 1927. 9. 7(四) [服色改良嚴命]

26) 매일신보, 1932. 11. 19(四)

27) ① 매일신보, 1932. 1. 15(二) [色衣宣傳標語募集]

② _____, 1932. 7. 28(三) [色衣宣傳標語募集]

28) ① 매일신보, 1933. 7. 25

② _____, 1934. 10. 8 [色服週間을 決定]

③ _____, 1934. 9. 27 [獎勵週間을 設定코...]

29) ① 매일신보, 1932. 12. 7 [白衣는 幽靈服 白衣는 未成服]

② _____, 1932. 12. 7 [白衣로 出席한 者에 刻印押捺]

③ _____, 1933. 10. 26 [白衣에 抑印]

30) 매일신보, 1938. 7. 24(三) [衣服의 規格統一을 實施토록]

31) 資料 “ファッション, 風俗七十年の變遷” 「ファッションと風俗の70年」, 婦人畫報社, 昭和51, p. 269.

32) 매일신보, 1941. 9. 2(四) [전시형 부인복]

< 표3 >

服飾制度改良의 항목

종류 년도	韓 服 類					洋 服 類			計	비 고
	白色禁止 (色服권장)	長衣등 쓰개류폐지	形 態 變 型	단 추	부 인 표준복	Khakie 色장려	몸 빼	용도별 의복구비		
1937	15	.	3	1	19	고름→단추는 형태변형에 포 함
1938	13	.	.	2	.	.	.	1	16	고름→단추는 형태변형에 포 함. 나들이 사 무복 구분 물 자절약 ²
1939	3	2	.	.	5	
1940	2	.	3	2	7	고름→단추 ² 형태변화에 포 함
1941	4	1	.	.	5	
1942	1	.	.	1	2	.	1	.	5	단추 ¹ 형태 변형에 포함
1943	.	.	4	2	.	.	8	.	16	단추 ² 형태 변형에 포함
1944	3	.	3	
1945	2	.	2	
계	40	.	10	8	2	3	14	1	78	

*매일신보 1937-1945년간 게재된 복식제도 개량에 관한 기사의 빈도를 표로 작성한 것임.

戰時에 병력의 증대는 軍用制服의 급격한 수요증가를 초래할 것이므로 평상시의 민간인의 복장을 軍服과 비슷하게 하여 유사시에 도 착용가능하게 함으로써 경비의 절감³³⁾을 꾀하려는 것이다. 즉 軍民被服의 近接運動³⁴⁾을 통해 효율적인 국민지도와 경비의 절감을 위한 의도가 당시의 표준복제정에는 내포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의복의 형태 및 衣料의 사용은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개정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빈곤하고 어려운 한국인의 衣生活을 더욱 황폐화하고 획일화시켰다.

① 衣料消費의 節約政策

의복에 國防的인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는 규격복 즉 표준복은 경찰부인복의 제정³⁵⁾을 시작으로 활동

가능한 전 여성을 대상으로 제정되었다.

당시 한국인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던 衣料는 綿과 人絹이었는데 戰時物資에 尙當하느라 공급이 불충분하였으므로 衣料事情은 무척 곤궁하였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衣料의 소비량을 절약하기 위해 衣服의 길이와 幅을 조정하였다.

저고리의 길이를 축소시키고 꼬리치마대신 통치마를 입도록 하였으며 60세이하³⁶⁾의 여성에게는 저고리의 고름대시 단추를 달도록 하였다.³⁷⁾

1938년 8월 이후에는 금속제 단추대신 「알미라이트」 「베크라이트」로 된 단추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³⁸⁾ 이밖에 금속제의 「후크」 「스냅」 「머리핀」 「브롯치」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33) 매일신보, 1942. 3. 19(二)[男女中高生の 制服]

34) 매일신보, 1933. 5. 13(二)[被服問題解決策軍民被服近接力說]

35) 매일신보, 1937. 11. 29(二)[警官婦人服制定]

36) 매일신보, 1938. 7. 10(四)[옷끈대신 단추를]

37) ① 매일신보, 1943. 8. 19(三)[반듯이 통치마입고 옷고름 대신에 단추]

② _____, 1943. 8. 23(二)[물리치자 긴치마]

③ _____, 1944. 8. 16(三)[決戰衣生活實踐]

38) 매일신보, 1939. 3. 23(二)

double breast의 양복착용을 금하였으며 나이 어린 학생에게는 여름에는 양말과 버선을 신지않고 맨발로 있을 것을 권장하였다.³⁹⁾



〈사진 2〉 개정된 교복(1942)
매일신보, 1942. 3. 19

또한 종래의 水兵服과 같은 모양의 교복 치마나 카라의 폭과 길이를 축소하여 개정된 교복(사진 2)은 3할정도의 옷감이 절약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여학생의 양말의 길이를 短小化시켜 짧은 양말을 신도록 제정하였다.⁴⁰⁾ 이로 인해 무엇인가로 항상 은폐되어있던 종아리는 노출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이와같은 모습은 정착되어 여학생의 여름용 제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도로 정착되었다(사진 3).



〈사진 3〉 여학생의 짧은 양말
매일신보, 1938. 8. 2

② 女敎員의 制服制定

1938년 제정된 여교원의 제복은 남색이나 흑색의 「서-지」「피켓」「스파」로 만든 스커트에 여름에는 흰 브라우스, 겨울에는 同色同質의 자켓을 입고 굽낮은 구두를 신는 투피스형의 양복(사진 4)으로 丁子屋 양복부에서 제작 보급하였다.⁴¹⁾

이와같은 투피스형의 양복은 한복에 비해 경제적이며 활동적이라는⁴²⁾ 이유에서 당시의 時局에 적합한 의복으로 권장되었다.

③ 몸빼의 강요

방공훈련이 잦아짐에 따라 여성들에게 몸빼의 착용을 강요하였으므로 다른 복장에 우선하여 몸빼는 戰時國民服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39) 매일신보, 1939. 7. 5(三)[맨발과 草鞋獎勵]

40) ① 매일신보, 1932. 8. 26(二)[國策, 女學生 붉은 정강이 勿驚, 三萬圓의 節約]

② _____, 1939. 4. 22(三)[긴 양말 無用!]

41) ① 매일신보, 1937. 6. 24(二)[敎員服裝을 制定]

② _____, 1938. 7. 20(二)[女敎員스파制服]

③ _____, 1938. 8. 6(二)[女先生님들의 淸楚한 制服]

42) 任貞嫻, “간편한 국민복”, 매일신보, 1941. 10. 4(四)



〈사진 4〉 여교원제복(1938)
매일신보, 1938. 8. 6

볼 수 있다.



〈사진 5〉 몸빼 착용않고는 관공서 출입금지(1944)
매일신보, 1944. 8. 11

運動上, 衛生上, 經濟上 유리한⁴³⁾ 몸빼는 1940년 5월 애국반이라는 명칭으로 가정부인이 방공훈련을 받게되면서 입기 시작한 이래⁴⁴⁾ 권장되었다.

바지만을 外衣로 착용해본 적이 없던 한국 여성들이 처음에는 수치감에서 잘 입지 않았으나 여성용 작업복이 별도로 제정된 것이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활동에 편리한 편의성과 당국의 강력한 정책에 의해 몸빼는 점차 확산되었다.⁴⁵⁾

몸빼를 항상 착용하도록 하기위해⁴⁶⁾ 「몸빼必着運動」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몸빼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공서나 공공집회장의 출입을 금지시켰으며(사진 5) 전차와 버스의 승차도 금지하였다.⁴⁷⁾

여유분량이 많고 풍덩하여 인체의 선을 드러내지 않는 몸빼는 별도의 작업복이 없던 상황에서 효율적임을 수증하여 바지대용으로 착용되었고 잔존하여 오늘 날에도 시정 여인들에게서 몸빼착용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지나칠 정도로 강요된 복식에 대한 통제는 의복을 통한 개성의 표현을 억제하고 전국민의 의복을 획일화시킨 원인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인의 의복관을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준 측면도 있다. 또한 물자절약의 측면에서 개정된 대부분의 의복이 衣料의 소비가 적은 서양복의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인이 착용하는 의복의 패턴이 한복에서 양복으로 바뀌는데 一助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43) 關川信子, “日本のズボンとしてのカラン, モンペ, 山袴等について, 國際服飾學會誌, No. 4, 1987, p. 49.

44) 매일신보, 1942. 7. 4(二)[스란치마 벗고서 늠늠한 몸빼복]

45) 매일신보, 1944. 8. 11(三)[婦人國民服은 몸빼]

46) ① 매일신보, 1943. 6. 13(四)[女子는 몸빼를 반드시 입어라]

② _____, 1944. 6. 30, 社説, [決戰服裝의 常時化]

47) 매일신보, 1944. 8. 5-9. 7

(2) 色服의 獎勵

① 白衣廢止運動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도 白衣着用者는 관공서나 시장의 출입을 금지하는⁴⁸⁾ 등 白衣廢止運動은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한편 1936년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 디자이너 田中千代는 당시 한국인의 服色중 90%정도가 흰 것에 착안하여⁴⁹⁾ 이듬해 鍾淵紡績京城工場開設을 기념하여 洋服地로 韓服을 제작 발표하였다. '백백하거나 큰 무늬의 옷은 천착스럽다고 경멸하여⁵⁰⁾ 白色의 무늬없는 옷만 입는 한국인을 위해 색과 무늬있는 옷에 대한 흥미를 주기위한 목표로 패션쇼를 하였다.⁵¹⁾

당시 한국인도 패션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최하고자하는 의욕도 나타났으나⁵²⁾ 그후 쇼가 개최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田中千代에 의한 1937년의 쇼는 한국에서 개최된 최초의 패션쇼로 생각된다.

服飾制度改良論議가 시작된 이래 白衣의 단점이 꾸준히 지적되었으며 더욱이 1922년이래 '官'의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부단히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白衣廢止運動이 해방직전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은 일반대중이 여전히 白衣를 착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국인의 白衣着用習慣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人爲的인 시도에 의해 쉽게 服色이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 色服獎勵運動은 결과적으로 한국인에게 服色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인의 服色習慣도 서서히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② Khaki色 獎勵

유사시에 軍服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비상시의 服色으로 軍服과 同色인 Khaki色을⁵³⁾ 장려하였다. 나라를 지키는 색이라는 의미에서 國防色으로 호칭되기도 하였던 Khaki色은 茶褐色이나 土色으로 표현되는 색으로서 노일전쟁이후 軍服色으로 개정(1905)⁵⁴⁾한 日帝에 의해 1937년이후 한국인의 의복에 이 색을 사용하도록 강요되었다.

우선적으로 공무원과 청년단원은 물론 전문대및 중등생의 제복의 색도 Khaki色으로 개정 통일시켰다. 그리하여 白色을 폐지하기 위한 대체색및 비상시의 服色으로 장려된 Khaki色은 그 당시 의복의 유행색이라고⁵⁵⁾할 정도로 흔하게 사용되었다.

4) 第四期(1946-1969)

(1) 洋服의 土着化

1890년 李淑卿에 의해 한국여성 최초로 양복이 착용되기 시작한⁵⁶⁾이래 한국의 전통문화와 이질적인 서양의 양복은 쉽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양복이 수용되는 정도가 증가되었다.

48) ① 매일신보, 1937. 10. 28(三)

② _____, 1937. 11. 12(三)

③ _____, 1937. 12. 21(四)

④ _____, 1945. 5. 20(二)

⑤ _____, 1945. 7. 22(二)

49) 田中千代, "服飾隨想", 매일신보, 1937. 1. 16(六)

50) 매일신보, 1926. 3. 1(三)[금년의 유행될 옷빛과 옷모양]

51) ① 田中千代, "私のデザイナー生活" 婦人畫報編, 「ファッションと 風俗の70年」, 婦人畫報社, 昭和 50, p. 147.

② _____, "服飾隨想", 前掲書, 1937. 1. 17(六).

52) 매일신보, 1936. 7. 8 [패션쇼우를 개최하고 유행을 창작하겠습니다]

53) 偽裝效果가 좋은 까닭에 1848년이래 불란서·영국·미국의 육군의 服色으로 사용되고 있다. Charlotte Calasibetta, 「Fair Child's Dictionary of Fashion」, Kamakura Shobo in Japan, 1977, p. 187.

54) "軍服にカキ色彩用", 婦人畫報編, 前掲書, p. 244.

55) 任貞嬾, "變해가는 流行界-간편한 국민복", 매일신보, 1941. 10. 4(四)

56) 한국에 있어서 여성양복의 시작은 1899년 尹高麗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윤고려의 양복차림은 1906년 이후이며 그전에 경옥당(독립신문 1899. 5. 31, 매일신보 1899. 2. 15)이라는 여인의 양복차림이 기사화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李淑卿(尹致旼의 부인으로 1907. 1. 死)는 1890년 일본에서 양복 착용. 따라서 한국여성최초의 양복차림은 1890년의 이숙경이며 한국의 국토안에서 여성양복의 시작은 1899년의 경옥당으로 판단됨.

한국동란이후 일부의 특수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착용하였던 구호양복은 양복착용의 확산속도를 가속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여성의 유일한 의복이었던 韓服의 영역이 차츰 洋服에 의해 축소되면서 양복은 한국여성의 일상복으로 위치하기에 이르렀다.

개항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일련의 服飾制度改良運動은 민족복이나 작업복등의 고정복(fixed costume)⁵⁷⁾을 간편하고 기능적인 의복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1차적인 결실은 통치마 스타일로 나타났으며 2차적인 결실은 일상복이 양복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체제가 서양식으로 바뀌고 사회의 변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 韓服의 變化 및 發展

젊은 층을 중심으로 外來服인 洋服의 착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이와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한복은 잊혀지고 말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전통한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새로운 사회구조에 응할 수 있는 요인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면서 적극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게되었다.

그리하여 서구화가 가속화되는 사회환경 속에서 한복에 대한 관심은 改良運動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착용되는 實用服과 명절이나 모임 등에 착용되는 禮服으로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韓服改良運動은 우리 것을 찾고 자하는 전통양식의 再評價와 함께 韓服의 現代化라는 과제면에서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이 禮服으로 정착되는 것도 개량운동의 한 갈래로 보았다. 왜냐하면 예복으로서의 한복의 경우 치마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나 재단된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사다리꼴이라든지 산수화나 자수등⁵⁸⁾을 첨가하여 장식성을 강조한 것이 한복 고유의 형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한복에 대한 개량의 의미로서 사용하였다.

① 日常服으로서의 韓服改良運動

韓服을 改善하여 現代化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實用服으로 정착시키고자하는 韓服改良運動은 해방이후에도 나타났으며 우리의 것인 한복을 잊지 않고 실용화하려는 시도와 함께 한복에 기능성과 심미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시도되었다.

구호품등의 미제물자와 밀수품의 범람은 外來品 選好思想을 조장하였으며 이로인해 外國產服地가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1953년 수입되기 시작한 나일론의 인기는 요즘의 시드루룩(see-through look)과 같이 속이 비치는 투명한 의복의 확산을 초래하여 사회적인 지적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직업상 보수성이 강한 여교사들에게 인체노출을 금지할⁵⁹⁾ 것이 요구되었으며 이와같은 국민생활검소화운동에 호응하여 여교사들은 검소한 복장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동시에 착용하는 옷의 종류에 있어서도 韓服이나 洋服을 자유롭게 선정하기로 하였다.

당시 흥미있는 사실중의 하나는 서구화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의 일상복으로 한복이나 양복을 선정할 때에 '官'주도로 강요하지않고 자유롭게 정하도록하므로써 '民'각자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00년대 服飾制度改良過程에서도 나타나는 바 여성복은 남성복에 비해 개혁의 과정에서 官의 지배를 덜 받고 비교적 임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것을 의미한다. 공직에 종사하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러한 기회가 적었던 여성의 의복에는 정책적으로 통제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만큼 덜 중요하다는 인식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女性服은 여성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변화가 형성되게 되었다.

국민생활검소화운동은 실용적인 복장에 관심을 초래하여 1950년대말 이후에는 農漁村改良服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복장의 사치가 계속되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날이 계속되어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4.19와 5.16 혁명을 겪게되었는데 이들 혁명을 겪으면서 긴장된 사회분위기는 의복에도 영향을 미치게되었다.

특히 5.16혁명직후에는 간편하고 기능적인 면에

57) 中嶋朝子, 「被服造形學」, 光生館, 1973, pp. 79-80.

58)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1985, p. 343.

59) ① 韓萬珠, "五月의 女人風景", 女性界, 1955. 5, p. 101.

② 조선일보, 1957. 5. 14, 萬物相 [女教師의 化粧警告]

③ 경향신문, 1957. 7. 14(三)[服裝은 소박하게]

역점을 둔 新生活服이 등장하였으며 이것은 1955년대의 국민생활검소화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복의 간편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1960년 12월에 한국디자이너협회 주최로 개최된 신생활디자인쇼에서는 실질적인 면에 치중한 의복등이 출품되었다. 고름대신 단추를 달고 깃과 길이를 변형시킨 개량두루마기등 실용적인 면에 치중한 개량한복과 양복을 제작 발표하여⁶⁰⁾ 이후의 의복개량에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듬해 1961년에는 再建國民運動서울支部 등이 공동주최⁶¹⁾한 女性新生活服裝行進이 있었다⁶²⁾(사진 6). 이때 제안된 개량한복은 이전에 비해 더욱 대담하게 양복의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짧은 통치마에 반소매의 보레로식의 저고리를 조화시킨 것이었다.



〈사진 6〉 신생활복행진(1961)
「시련과 영광의 민족사」, p. 537

1963년 6월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친선패션쇼」(사진 7)에서는 보레로식의 개량복(사진 8)외에 양복자켓에 한복의 요소인 깃과 동정 및 고름등을 넣어 디자인한 개량복이(사진 9) 출품되어 한복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사진 7〉 한일친선패션쇼 팸프렛(1963)
손경자 소장



〈사진 8〉 보레로식의 개량복(1963)
한일친선패션쇼

60) ① 여원, 1961. 2, 화보[新生活 디자인 쇼]

② 한정미, “국내패션쇼에 관한 실태분석연구”, 숙대대학원, 1988, p.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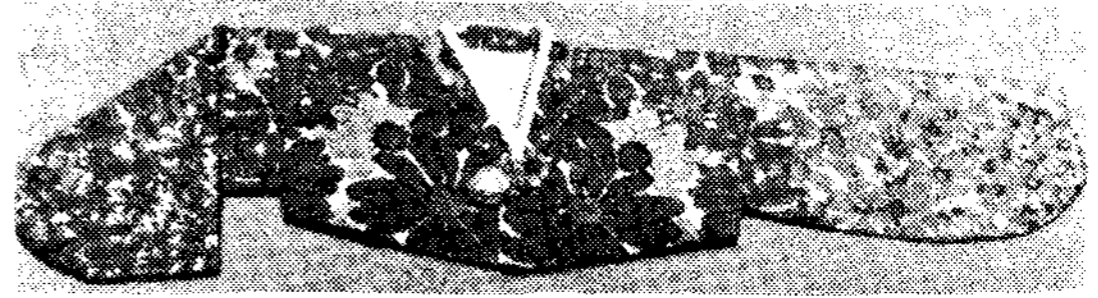
61) 再建國民運動 서울支部와 韓國디자인協會, 韓國俳優協會 공동주최

62) 여원, 1961. 8, 화보[거리에 나선 新生活服]



〈사진 9〉 개량복(1963)
한일친선패션쇼

이밖에 반소매에 동정이 없는 개량저고리⁶³⁾와 외형적인 형태와 분위기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재단에 변화를 가하여 진동 및 어깨의 선을 없이하여 제작된 저고리도 발표되었다(사진 10). 정사각형 마후라의 무늬를 살리기 위해 마후라 1장으로



〈사진 10〉 진동·어깨선 없는 저고리

「현대여성백과사전」, p. 131. 손경자 소장

한편의 소매와 깃이 나오도록 어깨선과 진동에 이음선을 없이하고 등줄기만 이어주는 것이었다.⁶⁴⁾

이밖에도 여러가지의 개량안이 실용복으로서 제시되었으나 개량된 한복이 간편하고 활동적이며 변화는 있으나 한국고유의 미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품위가 없고 경박해보인다⁶⁵⁾는 이유로 저항감을 갖는 여성이 많았다. 이와같이 여성의 인식불변으로 1960년대말 현재까지 실용복으로서의 한복은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시말하여 점차 착용의 범위가 축소되어가던 한복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상실용복으로서 정착시키고자한 시도는 성공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일상복으로는 한복의 착용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표4 〉

畫報에 나타난 한복의 度數

종류 \ 년도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畫報	·	·	·	·	·	·	·	·	·	·	6	9	8	14	3
廣告	·	·	·	·	·	·	·	·	·	·	·	·	·	5	12
計	·	·	·	·	·	·	·	·	·	·	6	9	8	19	15

- ① 여성잡지(여원, 주부생활), 1955년 - 1969년 사이에 게재된 화보와 광고에 나타난 한복의 빈도를 표로 작성한 것임.
- ② 광고는 주단집 광고임.
- ③ 1년을 4기로 나누어 3개월 마다 1권을 선정하여 자료화 하였음.
- ④ 한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경향을 알기위한 것으로 확대 해석에는 주의를 요함

② 禮服으로서의 韓服改良運動

표4는 1955-1969년간의 여성잡지에 게재된 韓服에 관한 畫報와 廣告의 빈도를 수량으로 표기한 것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화보나 광고에 한복이 게재된 것은 1965년이후인데 전통문화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하여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유행을 앞서서 이끄는 화보의 특성으로 보아

63) 韓服(책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生活女苑, 1979, p. 131.

64) 1964년도 당시 사진의 저고리를 제작·발표했던 손경자 교수談

65) 生活女苑, 1969. 1, p. 131.

일상의 의복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여성의 한복변화의 방향제시에 많은 구실을 하는 여성잡지의 역할⁶⁶⁾을 생각할 때 이후의 여성들의 한복착용이 증가될 것임을 예시해준다고 생각된다.

한복을 예복으로 착용하려는 인식은 1950년대말경 일상복으로서의 한복개량운동의 시작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고 있다.⁶⁷⁾ 활동성이 결여된 한복은 작업등 활동에 부적합하므로 활동복으로는 양복이나 개량된 한복을 착용하고 반면 한복의 장점을 살려 명절이나 모임등에 착용하므로써 한복을 현대화시키려는 의식이 짙고 있었다.

일상복으로서의 한복의 착용도가 축소됨에 따라 衣料나 색채 문양 길이등이 이전에 비해 장식적이고 화려한 느낌의 예복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행동으로 구현되어 이후 禮服化된 改良韓服이 각종 행사를 통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1950년 후반이후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는 上下同色에 삼회장을 단 저고리를 매년 신입생들에게 재단 배부하여 학교행사때에 착용하도록 함으로서 치마 저고리를 전파·확산시켰으며 1962년이래 수차에 걸쳐 李朝時代衣裳發表會를 개최함으로써 전통한복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기여하였다.⁶⁸⁾

한복패션의 국제화가 시도된 한국최초의 국제패션쇼였던⁶⁹⁾「한일친선패션쇼」(1963)에서도 禮服으로서의 한복이 제시되었다.

종래의 한복두루마기의 무를 없애고 코트의 카라와 같이 만든 것, 고름대신 단추나 리본으로 여민 개량 두루마기와 혼례복이나 피로연복을 겸하도록 당의를 현대화시킨 안이나 술(fringe)달린 파넬(panel)을 치마 뒤에 드린 혼례복(사진 11) 등이 특수복으로 제시되었다.

이밖에 기본형이 많이 변형된 개량예복도 제시되었다.

조끼허리를 소매없는 양복의 상의와 같이 활용하여 드레스로 만들거나 저고리의 여밈을 앞 중심에



〈사진 11〉 혼례복(1963)
한일친선패션쇼

두어 것이 좌우 대칭이 되게하며 도련의 앞자락을 둥글게하고 고름을 리본처럼 매어 정면에 부착한 아리랑드레스(사진 12)도 제시되어 무대의상과 같은 특수복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개량예복은 한복도 양복도 아닌 국적불명의 옷⁷⁰⁾이라하여 점차 사용되지 않게되고 한복의 기본형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외형을 지닌 예복의 사용이 점차 증가되었다.



〈사진 12〉 아리랑드레스, 「韓國放送史」

66) 崔垞, “韓國女性誌의 功過”, 여성동아, 1968. 11, pp. 125-126.

67) 여원, 1958. 6, p. 114.

68) ① 京鄉新聞, 1962. 11. 5 [首都女子師大李朝時代衣裳發表會]

② “李朝時代衣裳誌上展示”, 「同化그라프」, 同化通信社, 1962. 12.

69) 최경자, 「패션50년」, 의상사出版局, 1981, p. 114.

70) “韓服(뎁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生活女苑, 1969. 1, p. 131.

그리하여 1960년대 중반이되면 파-티에 나갈 때는 평소에 잘 입지않던 한복을 깨끗이 입고가면 훌륭한 이브닝드레스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한복은 명절이나 행사 때에 입는 예복으로서의 인식이 확실하게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당시 한복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요인중의 하나는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접했던 陸英修여사의 단아한 한복차림이 있었으며(사진 13) 1960년대말 경 경영을 쇄신하여 새롭게 등장한 주단점은 예복으로서의 한복을 보급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한복의 예복화 경향이 짙어지면서 주단점은 점차 한복의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되었다.



〈사진 13〉 육여사의 한복모습(1969)
여원, 1969. 10, p. 40.

이상에서 살펴봄 바와같이 해방이전과 이후를 통해 한복이 개량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해방이전에 수용된 개량한복인 통치마 저고리와 해방이후의 예복으로서의 치마 저고리는 다함께 제시된 여러 개량안중에서 한복의 기본형이 유지되면서 부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안이 선정 수용된 것이다. 다시말하여 개항이래 한국여성이 착용한 의복은 1960년대말에 이르기까지 전통복인 한복과 외래복인 양복이 상호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변화되어왔고 그러한 속에서 한복은 기본형을 유지한채 오늘 날까지 전해져왔음을 알 수 있다.

IV. 結 論

1900년이래 1969년까지의 服飾制度의 변천은 잡다한 변화 속에서도 그것이 지향하는 하나의 방향성이 발견된다. 그것은 便宜主義에 근거하여 의복에 간편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의복이 지향하는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개항 이래의 오랜 시간을 경과하여 1960년대에 이르러 일단락 되었으며, 이와같은 과정에 관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복식제도가 개량되기 위해서는 衣服着用的 주체인 여성의 意識이 변화되어야 하고 衣料의 發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항과 동시에 西歐의 新文物이 유입된 이래 근대 자본주의에 의한 직물공장의 발달은 衣料의 生産量과 種類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하였다.

더욱이 여성이 근대식 교육의 수혜자가 되고 교육 인구가 증가된 결과 여성의 의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습관적으로 답습되어지던 생활의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중 강하게 대두된 것이 服飾制度의 개량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衣料의 다양화와 함께 여성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전개된 복식제도개량의 단계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1898년 찬양회에 의해 최초의 건의가 있는 후 복식제도개량은 1905년 이후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우선적으로 長衣를 폐지할 것과 불합리한 저고리와 치마의 길이를 개선해야할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 제시된 복식제도개정안은 시기별로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의 차이점이 나타나지만 이후의 복식제도개량의 골격이 되었으며 내용상 3종류로 구분이 가능하다.

한복의 기본형은 유지한 채 부분적인 개량을 하는 案, 양복을 그대로 착용하는 案, 한복과 양복을 절충하여 개량을 하는 案으로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와같은 案이 나올 수 있었던 개량의 표본은 양복에 근거하였다.

3종류의 방안 중에서 당시의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수용된 것은 한복의 기본형은 유지한 채 일부 분에 국한하여 개량된 통치마 저고리였다.

이것은 여학생과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여성

71) 孫仁實, “輕快한 옷차림으로”, 주부생활, 1966. 1, p. 114.

들 사이에서 활동복 또는 직업복으로 착용되었으며 해방이후에도 양복이 그 역할을 대체하기 전까지 착용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제기된 것이 服色에 관한 것이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服色은 비교적 다양하였으나 그래도 전반적인 服色은 白色이었다. 色服에 비해 오염이 쉽게 되고 따라서 잦은 세탁을 하므로써 야기되는 衣料의 손상문제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의 노동력과 시간절약이라는 측면에서 服色改良은 시작되었다.

白衣禁止 色服獎勵政策은 日帝植民地時代를 통해 강제성을 띠고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복식에 대한 日帝의 통제는 白衣禁止에 국한되지 않고 특히 1937년 이후 해방직전까지는 戰時體制下에서 衣料의 절약과 함께 간편하고 실용적인 의복을 착용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한복의 경우에는 긴 치마대신 통치마를 입게하고 한복보다는 가급적 양복을 착용하도록 은연중에 권장하였다. 여학생의 교복을 개정하고 몸빼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의 國防色으로서 Khaki色을 장려하였다.

이와같이 복식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1930년대까지 나름대로 발전되던 여성의 복식계를 위축시키고 침체시켰으나 반면 이와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일반 여성들은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衣服觀을 갖게되었다.

한편 1890년 李淑卿에 의해 한국여성 최초로 양복이 착용되기 시작한 이래 한국의 전통복과 이질적인 양복은 쉽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양복이 수용되는 정도가 확산되었다.

오늘날 양복이 활동복 또는 직업복 등의 일상복으로 착용되기까지의 변화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광역적으로 확산되게된 직접적인 요인은 한국동란이었다.

해방이후 미군정시대에 비롯된 구호품의복은 한국동란 이후 가일층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 구호의복은 서양에서 수집되어 보내진 것으로서 모두가 양복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일부의 특수층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구호품인 양복을 착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양복착용의 정도가 광역적으로 가속화됨으로써 단시간에 일상복으로 자리하게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급속도로 양복화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한복착용

의 범위가 급격하게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하여도 어린 시절부터 양복을 입고 성장하여 활동복으로서의 양복의 편의성을 경험하였고 더욱이 한복의 재단 및 재봉기술은 물론 입는 방법도 잘 모르는 여성이 많은 것을 생각할 때 한복이 다시 유일한 일상복으로 착용되도록 되돌리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실용적인 활동복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되었으나 산업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수정을 거쳐 적응되어 나타난 것이 한복의 예복으로서의 역할이다.

이와같이 양복이 土着化된 현상은 한국현대의 여성복식제도에서 의복의 형식이 바뀐 일대 혁신적인 사실이며 이것은 신체노출을 최소화시킴으로서 나타나는 은폐성과 일년내 거의 같은 옷을 착용하는 未分化性, 非活動性등 보수적인 속성의 한복에서 인체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表現性, 活動性등 개방적인 속성의 양복착용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복식제도에 다양성을 부가하였다.

한편 한복에 구두나 양말을 신고 서양식의 內衣를 착용하는 것은 의복을 착용하는 주체인 여성이 부분적으로 양복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인체의 구간부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적거나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않는 足衣나 內衣가 먼저 洋服化된 후 인체의 구간부에 착용하는 의복이 양복화된 것이다.

남녀노소중에 양복이 수용되는 속도는 남성, 어린이, 여성의 順이었으며 이와같이 여성의 양복화가 남성이나 아동에 비해 늦은 것은 여성 의생활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시기에 새롭게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연령이나 대상에 따라 착용하는 의복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여학생이나 기생과같이 소속된 집단이 다른 경우 의복에 차이를 두어 구별함으로써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려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현대여성의 복식제도의 변화는 새로운 의복인 양복이 유입되었으나 단계적인 현상에 의해 점진적으로 대중속에 수용되어 일반화 되었다.

반면 예복화되어 특수복으로 자리잡은 한복은 예복이 지니는 특징상 화려하고 장식적인 측면이 강조되겠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한복의

기본형에서 벗어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복이 국제복이 되어 그것만으로는 국가의 구별이 확연하지 않을진대 민족복으로서의 한복은 한복의 기본형은 유지하면서 예복의 화려함을 표현할 것이 요구된다. 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의복으로서 위치하는 것이 바로 한복의 현대화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양복과 한복이 각기 일상복과 예복으로서 적절히 조화되게 역할분담을 하게 되면 한국여성의 복식제도는 합리적으로 발전되어나갈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itional process of clothes in modern Korean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clothes in modern Korean women in terms of a socioeconomical background, the introduction to western clothes, and the improvement of clothes between the opening period of ports in the early 1900's and 1960's.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d how western clothes became popular in a Korean society along with the traditional Korean clothes, Hanbok.

The radical social change since the opening of ports motivated the change in the way of Korean women's thinking, and consequently the improvement of Hanbok which developed into the clothes-improvement-movement. It was not until 1905 that the improvement of clothes was hotly debated particularly in the matter of abolishing Jangeui and the extreme length of Jeogori and Chima. The Tongchima-Jeogori style which lengthened Jeogori and shortened Chima was widely accepted as everyday wear until the western clothes substituted them after the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nquest.

As the length of Chima shortened, there occurred a change in Boson and Jipsin as well. There appeared shoes and Gomoosin in place of Jipsin, socks in stead of Boson and were popularized until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The popularity of Gomoosin diminished markedly with the diversification of shoes styles,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standard of living with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The traditional Hanbok was gradually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social status, for instance student, teachers, ordinary women, girls and Kisaeng. Especially since the white clothes caused much trouble in washing and sewing, there came into being the movement of wearing colorful clothes. The Movement of abolishing white clothes and promoting of wearing colorful clothes was enforc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nquest from the 1920's to the Liberation, which consequently stimulated an interest for colors of clothes.

The period under the war between 1937 and 1945 was especially noted for the extreme regulation over the clothes.

The Japanese government forced each group of women, e.g., girl students, a young women's association, school teachers, and ordinary women and girls, to wear their own uniforms.

Also, It recommended the use of Tongchima in stead of long skirts, and buttons in place of Coreum so as to conserve textile encouraging the use of other substitutes to save resources.

The western clothes, a model of clothe's improvement was deemed as a symbol of modernization and enjoyed general popularity. The supply of relief clothes after the Korean war accelerated the expansion of western clothes even further and the trend of westernization along with economic progress in the 1960's resulted in wearing of western clothes as everyday dress.

The expansion of western clothes as casual wear rapidly diminished wearing of Hanbok which in turn took the position of ceremonial dress worn in special cases only.

Hence the Korean women's clothes were dualized into traditional Hanbok and western clothes and the western clothes that stems on its convenience was settled as everyday wear where as the Hanbok appeared as ceremonial dress stressing

on ornamental features.

As mentioned above, we are able to discover an orientation in the course of transitional process of modern Korean women's clothes amidst diversified changes, which is a consistent pursuit of convenience and practicality based upon prog-

atism. The trend such as this came into a finale' as women's dress became dualistic in forms of Hanbok and western clothes, and the change since then is supposed to proceed in two forms of dress featuring its own style.